



# 보도와 평론

▲ 2014-1026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4년 2월 4일자 5면 「황우여 호남 지지율, 김한길 추월 ... 興도 '깜짝」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30%대의 깜짝 지지율을 기록, 새누리당이 원인 분석에 들어가는 등 한때 '즐거운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조사에서 새누리당 호남지역 정당 지지도는 15%에 불과했는데, 여당 대표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30%를 넘은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황우여'라는 이름이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고 대권주자도 아닌데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새누리당과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의 지난 1월 20~23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여당 대표의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황 대표는 전국적으로 30%의 지지율을 얻었고, 호남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33%의 지지를 받았다. 같은 조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호남지역 업무수행 지지율은 26%에 머물렀다. 호남지역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15%, 민주당이 33%였다. 역대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0%의 지지율을 받기도 힘들었다.

이 같은 깜짝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황 대표의 실제 인기인지, 조사 오류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움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갤럽이 앞서 1월 6~9일 조사했을 때도 황 대표 지지율은 전국 평균이 25%, 호남지역은 16%였다. 2주 만에 크게 증가한 것이지만, 그때도 낮은 편이

아니어서 황 대표에 대한 일정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자체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에게 호남 기독교인들이 높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갤럽 관계자는 “두 번의 조사만으로 지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아직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여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한 것은 이번 두 번이 전부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04010705233010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호남지역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해 20%대의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추월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한국갤럽의 지난 1월 20~23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황 대표는 전국적으로 30%의 지지율을 얻었고, 호남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33%의 지지를 받았다. 같은 조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호남지역 업무수행 지지율은 26%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이 같은 지지율에 대해 『깜짝 지지율』 『새누리당 ‘즐거운 소동’』 『새누리당 실제 인기인지, 조사 오류인지 파악』 등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유의미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조사기관과 시기만 밝혔을 뿐 조사 의뢰자,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에 대해 선 보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반드시 여론조사 기사에 포함돼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3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문〉

매경닷컴 2013년 9월 1일자 「채민서, 파격 ‘올누드’ 스틸컷 공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채민서, 파격 ‘올누드’ 스틸컷 공개

기사입력 2013.09.01 20:19:20 | 최종수정 2013.09.01 20:34:03

배우 채민서의 파격 ‘올 누드’ 스틸컷이 공개되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화 ‘채식주의자’ 스틸컷에서 채민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꽃과 식물 무늬의 페인트를 온 몸에 칠하고 등장한다.

영화 ‘채식주의자’는 소설가 한강의 작품인 ‘채식주의자’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육식을 멀리하며 식물이 되기를 원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렸다.

채민서는 극중 어느 날 꿈에 나타난 끔찍한 영상에 사로잡혀 육식을 멀리하고 점차 말라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식물이 되기를 꿈꾸는 영혜 역을 맡았다.

채민서의 상대 역에는 임순례 감독의 ‘세 친구’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김현성이 출연했다.

한편, 이 영화는 임우성 감독의 첫 장편 영화 작품임에도 선댄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 기자 happy@mk.co.kr] 』

<[http://photos.mk.co.kr/view.php?no=792491&sc=40100044&cm=인기포토N&year=2013&category=news&group\\_main=&group\\_sub=&group\\_code=](http://photos.mk.co.kr/view.php?no=792491&sc=40100044&cm=인기포토N&year=2013&category=news&group_main=&group_sub=&group_code=)>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24187>>

채민서, 파격 '올누드' 스틸컷 공개

기사입력 2010.01.14 15:59:36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지난 2010년 1월 14일에 게재한 「채민서, 파격 '올누드' 스틸컷 공개」 제목의 기사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같은 기자 이름으로 2013년 9월 1 일자로 포토뉴스 난에 그대로 게재하였다.

3년 전에 보도한 내용을 한 자도 고치지 않고 날짜만 바꿔 그대로 전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이며, 이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3-3014 신문윤리강령 위반

####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 〈주문〉

매경닷컴 2013년 8월 30일자 「캔디스 스와네포엘, 톱 모델의 비결은? ... ‘완벽한 허벅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캔디스 스와네포엘, 톱 모델의 비결은? ... ‘완벽한 허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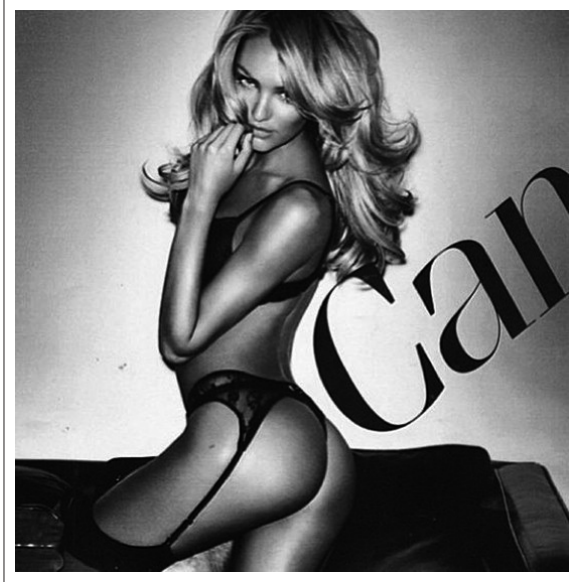
기사입력 2013.08.30 14:53:29 | 최종수정 2013.08.30 15:09:05

[스포츠서울닷컴 | 성지연 인턴기자] 캔디스 스와네포엘(24)이 속옷 모델다운 완벽한 보디라인을 공개했다. 스와네포엘은 7일(한국 시각) 사진공유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사진 속 스와네포엘은 도발적인 포즈와 함께 풍만한 엉덩이 라인을 뽐내고 있다. 가녀린 그의 팔에 비해 도드라지는 스와네포엘의 탄탄한 하체는 눈길을 끈다. 특히 자연스럽게 형클어진 그의 헤어스타일과 뇌쇄적인 눈빛은 못 남성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해 보인다.

다음 사진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뒤를 돌아 있는 스와네포엘은 속옷 자국만 난 채, 발가벗고 앉아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건강미 넘치는 그의 보디라인과 탄탄한 근육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스와네포엘의 사진을 본 국외 누리꾼들은 “하. 정말 스와네포엘 사진은 보기 싫어! 내 몸매랑 비교된다”, “항상 아름다우십니다”, “나랑 결혼해주세요”, “나도 저 속옷을 입고 똑같이 사진을 찍어 볼까?”, “다이어트 꼭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캔디스 스와네포엘은 올해 16번째를 맞는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의 카탈로그 표지 모델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수입 톱10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amysung@media.sportsseoul.com

연예팀 ssent@media.sportsseoul.com」

(<http://photos.mk.co.kr/view.php?category=news&sc=40500315&year=2013&no=78491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스포츠서울닷컴 6월 8일자 「캔디스 스와네포엘, 톱 모델의 비결은? ... ‘완벽한 허벅지’」 제목의 기사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8월 30일, 9월 2일 등 두차례 그대로 게재하였다.

두 달 전에 전제한 기사를 추가된 정보 없이 날짜만 바꿔 그대로 게재한 것은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이며, 이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p>캔디스 스와네포엘, 톱 모델의 비결은?<br/>... ‘완벽한 허벅지’</p> <p><a href="http://photos.mk.co.kr/view.php?category=news&amp;sc=40500315&amp;year=2013&amp;no=793633">http://photos.mk.co.kr/view.php?category=news&amp;sc=40500315&amp;year=2013&amp;no=793633</a></p> <p>기사입력 2013.09.02 07:30:22  <br/>최종수정 2013.09.02 07:30:59</p> | <p>캔디스 스와네포엘, 톱 모델의 비결은?<br/>... ‘완벽한 허벅지’</p> <p><a href="http://news.sportsseoul.com/read/sunday/1193324.htm">http://news.sportsseoul.com/read/sunday/1193324.htm</a></p> <p>입력 2013.06.08 08:30  <br/>수정 2013.06.08 08:30</p> |
| <p>[스포츠서울닷컴  성지연 인턴기자] 캔디스 스와네포엘(24)이 속옷 모델다운 완벽한 보디라인을 공개했다.</p> <p>스와네포엘은 7일(한국 시각) 사진공유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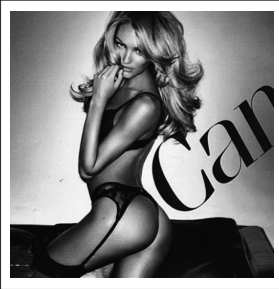


사진 속 스와네포엘은 도발적인 포즈와 함께 풍만한 엉덩이 라인을 뽐내고 서 있다. 가녀린 그의 팔에 비해 도드라지는 스와네포엘의 탄탄한 하체는 눈길을 끈다. 특히 자연스럽게 형클어진 그의 헤어스타일과 뇌쇄적인 눈빛은 못 남성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해 보인다.

다음 사진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뒤를 돌아 있는 스와네포엘은 속옷 자국만 난 채, 발가벗고 앉아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건강미 넘치는 그의 보디라인과 탄탄한 근육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스와네포엘의 사진을 본 국외 누리꾼들은 “하. 정말 스와네포엘 사진은 보기 싫어! 내 몸매랑 비교된다”, “항상 아름다우십니다”, “나랑 결혼해주세요”, “나도 저 속옷을 입고 똑같이 사진을 찍어 볼까?”, “다이어트 꼭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캔디스 스와네포엘은 올해 16번째를 맞는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의 카탈로그 표지 모델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수입 톱10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amysung@media.sportsseoul.com  
연예팀 ssent@media.sportsseoul.co

스와네포엘(24)이 속옷 모델다운 완벽한 보디라인을 공개했다.

스와네포엘은 7일(한국 시각) 사진공유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사진 속 스와네포엘은 도발적인 포즈와 함께 풍만한 엉덩이 라인을 뽐내고 서 있다. 가녀린 그의 팔에 비해 도드라지는 스와네포엘의 탄탄한 하체는 눈길을 끈다. 특히 자연스럽게 형클어진 그의 헤어스타일과 뇌쇄적인 눈빛은 못 남성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해 보인다.

다음 사진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뒤를 돌아 있는 스와네포엘은 속옷 자국만 난 채, 발가벗고 앉아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건강미 넘치는 그의 보디라인과 탄탄한 근육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스와네포엘의 사진을 본 국외 누리꾼들은 “하. 정말 스와네포엘 사진은 보기 싫어! 내 몸매랑 비교된다”, “항상 아름다우십니다”, “나랑 결혼해주세요”, “나도 저 속옷을 입고 똑같이 사진을 찍어 볼까?”, “다이어트 꼭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캔디스 스와네포엘은 올해 16번째를 맞는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의 카탈로그 표지 모델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수입 톱10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amysung@media.sportsseoul.com  
연예팀 ssent@media.sportsseoul.com

▲ 2013-3022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형식

〈주문〉

매경닷컴 2013년 9월 26일자 「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 제목의 기사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

기사입력 2013.09.26 11:02:50 | 최종수정 2013.09.26 11:09:00

배우 홍수아가 파격 노출 화보를 공개, 시선을 집중시켰다.



청순한 외모와 털털한 성격으로 잘 알려진 홍수아는 이번 화보를 통해 반라 노출을 감행한 것은 물론 몽환적인 표정으로 고풍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바디라인을 선보였다.

에스콰이어 김민정 부장은 “20대 여성들의 패션 아이콘인 홍수아가 최근 KBS 2TV ‘강철본색’을 마치고 배우 홍수아로 거듭나는 스토리를 꽤서너블한 모습과 함께 담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홍수아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만든 에세이집을 발행할 예정이며,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연예팀/사진=에스콰이어 제공]

<<http://photos.mk.co.kr/view.php?category=news&sc=40500017&year=2013&no=89760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2012년 5월 30일자 「[화보] 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 제목의 기사를 「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이라고 제목을 약간 바꾼 뒤 사진 4장 중 한 장만을 골라 싣고 보도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홍수아는 에스콰이어 6월호를 통해 다양한 매력이 동시에 느껴지는 화보를 공개했다”는 문장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게재하였다.

1년여 전에 게재한 기사를 추가된 정보 없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날짜만 바꿔 그대로 게재한 것은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이며, 이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사 비교

|                                                                                                                 |                                                                                                                                                                                              |
|-----------------------------------------------------------------------------------------------------------------|----------------------------------------------------------------------------------------------------------------------------------------------------------------------------------------------|
| <p>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p>                                                                                    | <p>[화보] 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br/> <a href="http://star.mk.co.kr/new/view.php?mc=ST&amp;no=328637&amp;year=2012">http://star.mk.co.kr/new/view.php?mc=ST&amp;no=328637&amp;year=2012</a></p> |
| <p>기사입력 2013.09.26 11:02:50  <br/>         최종수정 2013.09.26 11:09:00</p>                                         | <p>기사입력 2012.05.30 14:14:34  <br/>         최종수정 2012.05.30 15:29:29</p>                                                                                                                      |
| <p>배우 홍수아가 파격 노출 화보를 공개, 시선을 집중시켰다.</p>                                                                         | <p>[화보] 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p>                                                                                                                                                            |
|                                |                                                                                                            |
| <p>(삭제)</p>                                                                                                     | <p>홍수아는 에스콰이어 6월호를 통해 다양한 매력이 동시에 느껴지는 화보를 공개했다.</p>                                                                                                                                         |
| <p>청순한 외모와 털털한 성격으로 잘 알려진 홍수아는 이번 화보를 통해 반라 노출을 감행한 것은 물론 몽환적인 표정으로 고혹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바디라인을 선보였다.</p>                | <p>청순한 외모와 털털한 성격으로 잘 알려진 홍수아는 이번 화보를 통해 반라 노출을 감행한 것은 물론 몽환적인 표정으로 고혹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바디라인을 선보였다.</p>                                                                                             |
| <p>에스콰이어 김민정 부장은 “20대 여성들의 패션 아이콘인 홍수아가 최근 KBS 2TV ‘강철본색’을 마치고 배우 홍수아로 거듭나는 스토리를 패셔너블한 모습과 함께 담고 싶었다”고 밝혔다.</p> | <p>에스콰이어 김민정 부장은 “20대 여성들의 패션 아이콘인 홍수아가 최근 KBS 2TV ‘강철본색’을 마치고 배우 홍수아로 거듭나는 스토리를 패셔너블한 모습과 함께 담고 싶었다”고 밝혔다.</p>                                                                              |
| <p>한편 홍수아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만든 에세이집을 발행할 예정이며,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p>                                                   | <p>한편 홍수아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만든 에세이집을 발행할 예정이며,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p>                                                                                                                                |
| <p>[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연예팀/사진=에스콰이어 제공]</p>                                                                             | <p>[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연예팀/사진=에스콰이어 제공]</p>                                                                                                                                                          |

▲ 2013-3023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 문〉

매경닷컴 2013년 9월 29일자 「간루루, 모터쇼 깜짝 노출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한다.

〈이 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간루루, 모터쇼 깜짝 노출쇼』

기사입력 2013.09.29 08:47:25 | 최종수정 2013.09.29 20:04:42

‘중국판 똥습녀’로 불리는 모델 간루루(27, 干露露)가 베이징에서 열렸던 모터쇼에 파격적인 의상과 함께 깜짝 등장해 화제다.

간루루는 베이징 국제 모터쇼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전 모친이 촬영한 샤워 동영상으로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고 공식석상에 파격적인 의상으로 나타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간루루는 이날 역시 가슴의 주요부위만 아슬아슬하게 가린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중국언론들은 이날 그녀의 모터쇼 방문은 예정에 없던 것이라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간루루의 의상은 ‘모터쇼의 꽃’으로 불리는 레이싱 모델들에게 향해있던 카메라 플래시를 모두 훔쳐 다른 모델들에게 굴욕을 안겼다는 후문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 기자 nobodyin@mk.co.kr]

<<http://photos.mk.co.kr/view.php?category=news&sc=40500017&year=2013&no=9100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2012년 4월 27일자 「'중국판 똥습녀' 노출여왕 간루루, 모터쇼 깜짝 방문」 제목의 기사를 「간루루, 모터쇼 깜짝 노출쇼」이라고 제목을 줄이고 사진 2장을 추가한 뒤 보도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행사일자(빨간 색 부분)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게재하였다.

1년여 전에 게재한 기사를 사진을 추가했다고는 하나 추가된 정보 없이 날짜만 바꿔 그대로 게재한 것은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이다. 특히 위 기사는 1년 전 행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2012라는 숫자를 지워 시점을 모

호하게 함으로써 마치 최근에 열린 행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이는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사 비교

|                                                                                                                                                                                                                                                                                                                                                                                                                                                                                                                  |                                                                                                                                                                                                                                                                                                                                                                                                                                                                                                                       |
|------------------------------------------------------------------------------------------------------------------------------------------------------------------------------------------------------------------------------------------------------------------------------------------------------------------------------------------------------------------------------------------------------------------------------------------------------------------------------------------------------------------|-----------------------------------------------------------------------------------------------------------------------------------------------------------------------------------------------------------------------------------------------------------------------------------------------------------------------------------------------------------------------------------------------------------------------------------------------------------------------------------------------------------------------|
| <p>간루루, 모터쇼 깜짝 노출쇼</p>                                                                                                                                                                                                                                                                                                                                                                                                                                                                                           | <p>‘중국판 똥습녀’ 노출여왕 간루루, 모터쇼 깜짝 방문<br/> <a href="http://star.mk.co.kr/new/view.php?mc=ST&amp;no=256664&amp;year=2012">http://star.mk.co.kr/new/view.php?mc=ST&amp;no=256664&amp;year=2012</a></p>                                                                                                                                                                                                                                                                                                                       |
| <p>기사입력 2013.09.29 08:47:25  <br/>         최종수정 2013.09.29 20:04:42</p> <p>‘중국판 똥습녀’로 불리는 모델 간루루(27, 干露露)가 베이징에서 열렸던 모터쇼에 파격적인 의상과 함께 깜짝 등장해 화제다.</p> <p>간루루는 ×××××× 베이징 국제 모터쇼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전 모친이 촬영한 샤워 동영상으로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고 공식석상에 파격적인 의상으로 나타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간루루는 이날 역시 가슴의 주요부위만 아슬아슬하게 가린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p> <p>중국언론들은 이날 그녀의 모터쇼 방문은 예정에 없던 것이라 장내는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간루루의 의상은 ‘모터쇼의 꽃’으로 불리는 레이싱 모델들에게 향해있던 카메라 플래시를 모두 훑쳐 다른 모델들에게 굴욕을 안겼다는 후문이다.</p> <p>[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 기자 nobody-in@mk.co.kr]</p> | <p>기사입력 2012.04.27 09:28:12  <br/>         최종수정 2012.04.27 18:51:23</p> <p>‘중국판 똥습녀’로 불리는 모델 간루루(27, 干露露)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쇼에 파격적인 의상과 함께 깜짝 등장해 화제다.</p> <p>간루루는 24일 2012 베이징 국제 모터쇼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전 모친이 촬영한 샤워 동영상으로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고 공식석상에 파격적인 의상으로 나타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간루루는 이날 역시 가슴의 주요부위만 아슬아슬하게 가린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p> <p>중국언론들은 이날 그녀의 모터쇼 방문은 예정에 없던 것이라 장내는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간루루의 의상은 ‘모터쇼의 꽃’으로 불리는 레이싱 모델들에게 향해있던 카메라 플래시를 모두 훑쳐 다른 모델들에게 굴욕을 안겼다는 후문이다.</p> <p>[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 기자 nobody-in@mk.co.kr]</p> |

▲ 2013-3031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조 한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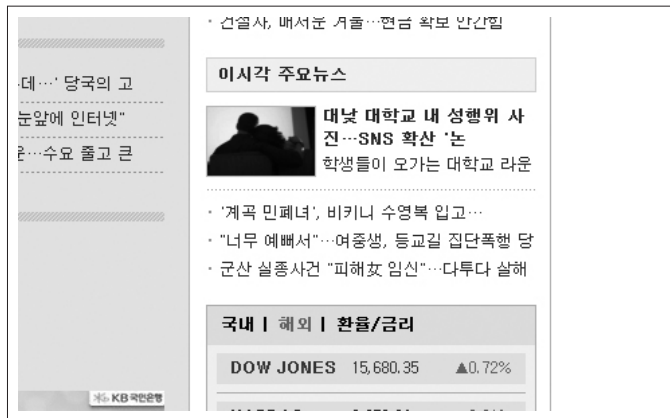
〈주문〉

세계닷컴(세계파이낸스) 2013년 10월 30일자(캡처시각) 「대낮 대학교 내 성행위 사진 … SNS 확산 ‘논란’」 제목 외 3건 등 〈이시각 주요뉴스〉 기사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파이낸스에 게재된 〈이시각 주요뉴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30. 15:55 캡처〉



1) 대낮 대학교 내 성행위 사진 … SNS 확산 ‘논란’

세계닷컴 홈페이지

〈<http://www.segye.com/index.jsp>〉



## 2) '계곡 민폐녀', 비키니 수영복 입고 ...



입력 2013-07-29 16:20:20, 수정 2013-07-30 13:33:22

'계곡 민폐녀', 가족끼리 노는 곳에서 비키니 입고 ...

이른바 '계곡 민폐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곡 민폐녀'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여성은 몸매가 드러나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서 있다. (중간생략)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계곡에서는 비키니 입으면 법에 걸리나", "비키니 입을 자유 정도는 있다"며 논란이 된 여성을 옹호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7/29/20130729023386.html>

## 3) "너무 예뻐서" ... 여중생, 등교길 집단폭행 당해

입력 2013-07-29 14:33:41, 수정 2013-07-30 04:57:46

"너무 예뻐서" ... 여중생, 미모 때문에 집단폭행 당해

예쁘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이 등교 도중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일이 발생했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이 지방도시 투쿠만이 근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도했다고 서울신문이 2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카디아라는 지역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한 소녀를 집단 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잡고 뒹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구타했다.

(이하 생략)

뉴스팀 news@segye.c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7/29/20130729022561.html>>

#### 4) 군산 실종사건 “피해女 임신” … 다투다 살해

입력 2013-07-29 10:59:56, 수정 2013-07-31 07:33:15

군산 여성 실종사건 “피해자 임신” … 다투다 살해했다

‘군산 여성 실종사건’의 용의자인 현직 경찰관이 실종여성과 다투다 살해해 암매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내연 관계였던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모(40) 경사를 만나러 나간 이모(40)씨가 실종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정 경사를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하 생략)

이○○ 기자 ehofkd11@segye.c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7/29/20130729021233.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파이낸스는 자사 사이트 메인페이지 <이시각 주요 뉴스(11월 11일 캡처)>난에 「대낮 대학교 내 성행위 사진 … SNS 확산 ‘논란’」 제목 외 3건의 기사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열면 각각 3개월여 지난 7월 29일자 세계닷컴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대낮 대학교 내 성행위 사진 … SNS 확산 ‘논란’」 제목의 기사는 세계닷컴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등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특정 기사를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방식 하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전문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32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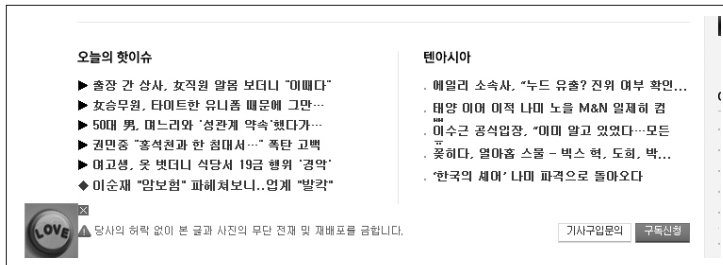
〈주문〉

한경닷컴 2013년 11월 11일자(캡처시각) 「50대 男, 며느리와 성관계 약속했다가 …」 제목 외 1건 〈오늘의 핫이슈〉 기사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1. 11. 16:55 캡처시각〉



1) 50대 男, 며느리와 성관계 약속했다가 …

채팅방서 '성관계 약속'한 女 알고보니 … 경악

입력 2013-10-29 10:18:32 수정 2013-10-29 13:27:38

중국의 한 50대 남성이 성관계 약속 후 만난 여성이 다름 아닌 며느리였다  
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중간생략)

이날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여성은 혼비백산해 도망쳤지만 호텔 로비에서

이내 뒤따라온 남편에게 잡혀 폭행을 당했고, 뒤에 서있던 왕 씨 또한 아들에게 맞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02916337>)

## 2) 여고생 옷벗더니 식당서 19금 행위 '경악'

美 '고교생 음란동영상' 파문

입력 2013-10-17 03:04:51 수정 2013-10-17 05:11:56

미국 고등학교에서 남녀 학생이 점심을 먹는 급우들 사이에서 성행위를 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하 생략)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0177084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자사 사이트 서브페이지 메인페이지 <오늘의 핫이슈(11월 11일 캡처)>난에 「50대 男, 며느리와 성관계 약속했다가 ...」, 「여고생 옷벗더니 식당서 19금 행위 '경악」이라는 제목을 각각 게재하고 보름여가 지난 10월 29일, 10월 17일자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뉴스목차에 게재한 제목은 뉴스면에 있는 원래의 제목 보다 더 선정적이다. 특정 기사를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방식 하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전문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35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문〉

매경닷컴 2013년 11월 18일자(이하 캡처시각) 「[베스트 클릭화보] 최여진」,  
10월 21일자 「[베스트클릭화보] 최여진 갤러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1.18 10:59 캡처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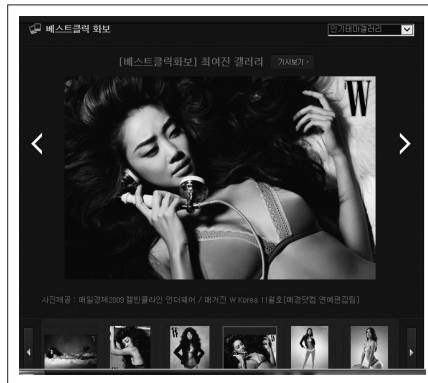
1) 최여진



<[http://photos.mk.co.kr/slide.php?initNo=1145293&filename=list&sc=40500325&year=2013&category=news&group\\_main=&group\\_sub=](http://photos.mk.co.kr/slide.php?initNo=1145293&filename=list&sc=40500325&year=2013&category=news&group_main=&group_sub=)>

## 2) [베스트클릭화보] 최여진 갤러리

<10. 21 15:40 캡처시각>



기사입력 2013.10.21 13:23:38 | 최종수정 2013.10.21 13:38:01

사진제공 : 매일경제

2009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 매거진 W Korea 11월호

[매경닷컴 연예편집팀]

▶ 참고사항 : 매경닷컴 2009년 10월 22일자 게재 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54895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2009년 10월 22일자 「최여진, 화보서 명품 몸매 드러내」 기사를 2013년 11월 18일자 「[베스트클릭화보]최여진」, 10월 21일자 「[베스트클릭화보] 최여진 갤러리」로 각각 제목을 바꾸고 본문을 삭제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게재하였다.

4년여 전에 게재한 기사를 추가된 정보 없이 내용 대부분을 삭제하고 날짜만 바꿔 그대로 게재한 것은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이며, 이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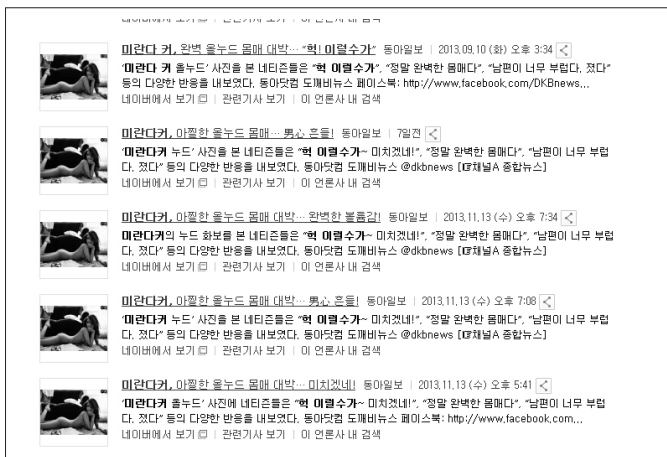
▲ 2013-3037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도깨비뉴스) 2013년 11월 13일자 「미란다 커, 완벽 올누드 대박 ... “헉! 이럴수가”」, 「미란다 커, 아찔한 올누드 몸매 대박 ... 미치겠네!」, 「미란다 커, 아찔한 올누드 대박 ... 男心 흔들!」, 「미란다 커, 아찔한 올누드 대박 ... 완벽한 볼륨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도깨비뉴스가 게재한 위 적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2.09 13:59〉

■ 기사 비교

| 원기사                                                                                                                                                                                                                                                                                                                                                                                                                                                                                                                                 | 재전송기사                                                                                                                                                                                                                                                                                                                                                                                                                                                                                                                           |
|-------------------------------------------------------------------------------------------------------------------------------------------------------------------------------------------------------------------------------------------------------------------------------------------------------------------------------------------------------------------------------------------------------------------------------------------------------------------------------------------------------------------------------------|---------------------------------------------------------------------------------------------------------------------------------------------------------------------------------------------------------------------------------------------------------------------------------------------------------------------------------------------------------------------------------------------------------------------------------------------------------------------------------------------------------------------------------|
| <p>미란다 커, 완벽 올누드 몸매 대박 ...<br/>“헉! 이럴수가”<br/>[2013-09-10 15:29:00]<br/><a href="http://dkbnews.donga.com/3/all/20130910/57575426/2">http://dkbnews.donga.com/3/all/20130910/57575426/2</a></p>                                                                                                                                                                                                                                                                                                                                      | <p>1) 미란다커, 완벽 올누드 몸매 대박 ...<br/>“헉! 이럴수가”<br/>[2013-11-13 17:06:00]<br/><a href="http://dkbnews.donga.com/3/all/20131113/58874513/2">http://dkbnews.donga.com/3/all/20131113/58874513/2</a></p>                                                                                                                                                                                                                                                                                                                                |
| <div data-bbox="300 587 602 800" data-label="Image"> </div> <p>미란다 커의 과거 올누드 화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p> <p>미란다 커는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였다.</p> <p>미란다 커는 엎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못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p> <p>미란다 커는 최근 한 시사회에서 가슴 노출로 곤욕을 치루면서 과거 화보들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p>‘미란다 커 올누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헉 이럴수가”,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p> <p>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br/><a href="http://www.facebook.com/DKBnews">http://www.facebook.com/DKBnews</a></p> | <div data-bbox="754 587 1056 800" data-label="Image"> </div> <p>미란다커의 과거 올누드 화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p> <p>미란다커는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였다.</p> <p>미란다커는 엎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못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p> <p>미란다커는 최근 한 시사회에서 가슴 노출로 곤욕을 치루면서 과거 화보들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p>‘미란다커 올누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헉 이럴수가”,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p> <p>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br/><a href="http://www.facebook.com/DKBnews">http://www.facebook.com/DKBnews</a></p> |



1) 1번 기사  
 미란다 커의 과거 올누드 화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란다 커는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였다.  
 미란다 커는 엮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못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미란다 커는 최근 한 시사회에서 가슴 노출 곤욕을 치루면서 과거 화보들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란다 커 올누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헉 이럴수가”,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2) 2번 기사  
 미란다커의 올누드 화보가 새삼 화제다.  
 미란다커는 과거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인 바 있다.  
 사진 속 미란다커는 엮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못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2) 미란다커, 아찔한 올누드 몸매 대박... 미치겠네!  
 [2013-11-13 17:38:41]  
<http://dkbnews.donga.com/3/all/20131113/58875565/2>



미란다커의 올누드 화보가 새삼 화제다.  
 미란다커는 과거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인 바 있다.  
 사진 속 미란다커는 엮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못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삭제)  
 ‘미란다커 올누드’ 사진에 네티즌들은 “헉 이럴수가~ 미치겠네!”,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3) 미란다커, 아찔한 올누드 몸매 대박... 男心 흔들!  
 [2013-11-13 19:05:49]  
<http://dkbnews.donga.com/3/all/20131113/58877564/2?rec=1>



미란다커 올누드' 사진에 네티즌들은 "혁 이럴수가~ 미치겠네!",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톱모델 미란다커의 올누드 화보가 새삼 화제다.

미란다커는 과거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였다.

공개된 사진에서 미란다커는 엷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못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미란다커 누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혁 이럴수가~ 미치겠네!",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3)번 기사

톱모델 미란다커의 올누드 화보가 새삼 화제다.

미란다커는 과거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였다.

공개된 사진에서 미란다커는 엷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못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미란다커 누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혁 이럴수가~ 미치겠네!",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4)미란다커, 아찔한 올누드 몸매 대박... 완벽한 볼륨감!

[2013-11-13 19:30:43]

<http://dkbnews.donga.com/3/all/20131113/58877924/2>



세계적인 톱모델 미란다커의 올누드 화보가 새삼 화제다.

미란다커는 과거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였다.

공개된 사진에서 미란다커는 엷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못 남성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  |                                                                                                                         |
|--|-------------------------------------------------------------------------------------------------------------------------|
|  | <p>미란다커의 누드 화보를 본 네티즌들은 “헉 이럴수가~ 미치겠네!”,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p> <p>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p> |
|--|-------------------------------------------------------------------------------------------------------------------------|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도깨비뉴스는 2013년 9월 10일자 「미란다 커, 완벽 올누드 몸매 대박 ... “헉! 이럴수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뒤 한달 여가 지난 11월 13일 사진을 포함해 제목과 기사를 한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포털에 송고한 데 이어 1시간 20여분 사이에 제목을 약간 바꾸고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단어 몇 개를 고치는 방식으로 수정한 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라는 동일한 크레디트를 달아 모두 네차례 전송하였다.

한차례 보도한 내용을 추가된 정보 없이 단어 몇 개만 고친 뒤 여러차례 전송하는 것은 기사의 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한 작위적인 행위로, 이는 정확성·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이며,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4-3007 신문윤리강령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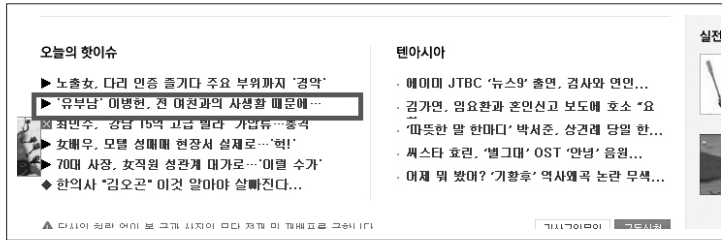
####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 <주문>

한경닷컴 2014년 1월 22일자(캡처시각) 「‘유부남’ 이병헌, 전 여친과의 사생활 때문에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캡처시각 1. 22. 14:4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3060807>>

『이병헌 ‘사생활 폭로’ 협박범, 결국...』

입력 2014-01-02 23:51:34 수정 2014-01-08 15:44:01

배우 이병헌에게 사생활 폭로 내용을 협박했던 장모(54)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와 관련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의 지인 장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이병헌씨를 협박한 장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 판사는 이어 “장씨가 강병규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9년 방송인 강병규씨 등과 공모해 캐나다 국적의 전 여자친구 권 모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병헌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mailto:newsinfo@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026238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자사사이트 서브페이지 <오늘의 핫이슈>란에 여러 기사 제목을 게재하고 이 가운데 일부 기사의 경우 작성일 기준으로 일주일 내지 20여 일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다. 통상적으로 ‘오늘의 핫이슈’라 함은 당일 또는 아주 최근의 기사로밖에 볼 수 없는데, 한번 보도한 기사를 상당 기간 노출해 마치 새기사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는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특히 「유부남 이병헌, 전 여친과의 사생활 때문에 …」 제목의 기사는 1월 2일 작성되었음에도 1월 22일까지 장시간 게재되었다. “배우 이병헌에게 사생활 폭로 내용을 헐박했던 장모(54)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다 알려진 소식임에도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톱스타라는 이유만으로 <오늘의 핫이슈>라는 타이틀 하에 이렇듯 장시간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흥미와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기만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뉴스는 이야기가 새롭고 처음으로 취급된 보도여야 할 것이다. 남이 먼저 보도하였거나, 현재와 상당히 떨어진 이야기는 뉴스의 가치가 적거나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